

○鄭昌和委員 그러면 證人は 소위 말하는 金大中內亂陰謀事件에 관련된 이 國會聽聞會에 제출된 모든 裁判記錄이 전부 조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證人 李信範 제가요 法廷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搜查機關의 調書는 모두 拷問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고 軍檢察에 送致됐을 때 제가 다 허위라고 그러면서 陳述을 거부했습니다.

鄭基用證人は 모두 被告人들이 다 순순히 자백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며칠을 버티는데 당시 法務官이 자기 마음대로 打字를 쳐 가지고 전장한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강제로 목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檢察이 작성한 調書도 모두 허위입니다.

法廷에서 한 부분도 제가 일부를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 부분은 아마 세 기억이 맞을 것 같습니다.

○鄭昌和委員 法廷에서도 이것이 이러한 사실이 허위로 자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證人 李信範 法廷에서 얘기 다 했습니다.

○鄭昌和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裁判官은 有罪로 判決을 내렸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李信範 당시에 裁判部忌避申請도 했고요. 제가 裁判管轄權이 잘못되었다고 裁定申請도 했습니다. 그런데 裁判長들이 뭐 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柳根煥中將이 그때 裁判을 했는데요. 어불어물하더니 그냥 각본대로 하는 것 그런 것이 軍法會議입니까?

○鄭昌和委員 그러면 證人は 學生運動을 流血의 사태까지 끌고 가거나 學生을 동원하여 學生示威를 통하여 民主化를 구태어 이룩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는 또 그러한 생각은 없었다는 것이 인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證人 李信範 學生을 동원해서 뭐 流血을 일으키려 했다는 그런 것은 제가 한번도 꿈꿔본 일도 없고요 오늘날까지도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鄭昌和委員 그리고 學生運動을 통해서 民主化를 이룩한다 그러한 생각도 그렇게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구만요.

○證人 李信範 제가 學生일때는 學生運動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80年 봄이라는 상황

에서는 저는 指名手配中인 사람이었고 활발하게 學生運動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鄭昌和委員 마지막으로 지금 證人は 國會交涉團體인 統一民主黨의 政策研究室長으로 제시지요?

○證人 李信範 예. 政策研究室長입니다.

○鄭昌和委員 制度圈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民主化를 위해 制度圈 안에서 이제 힘을 합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鄭昌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李仁濟委員 訊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10分입니다.

○李仁濟委員 民主黨의 李仁濟委員입니다.

證人は 時局과 관련해서 指名手配를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證人 李信範 1979年 11月 26日입니다.

○李仁濟委員 YWCA事件直後에 嫌疑者로 手配를 받았습니까?

○證人 李信範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체포된 시기는 80年6月18日이라고 그랬지요?

○證人 李信範 예. 맞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몇달동안이나 피해다니셨습니까?

○證人 李信範 約 8個月 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約 8個月... 80年 5月 17日 非常戒嚴이 全國으로 확대되고 문제의 光州悲劇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도 나온 몇몇 證人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月17日 서둘러서 이와 같이 非常戒嚴을 확대한 원인이 5月 22日 學生들이 일제히 示威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했다 이렇게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證人は 5月22日 學生들이 戒嚴解除를 요구하는 일제 示威計劃에 관해서 뭐 아는 것이 있습니까?

○證人 李信範 5月16日인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나 피신하던 몇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戒嚴令이 해제가 안되면 일부 在野에서 5月 22日쯤에 示威를 한번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반대하면서 얘기하기를 共和黨도 國會를 소집하려 하고 國會가 소집이 될테니 國會가 어떻게 하나를 보고서 결정해도 늦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5月 22日 일제 示威計劃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運動一部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 정도이지 이것이 무슨 軍隊式으로 그야말로 全國的規模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런 蓋然性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證人 李信範 그것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결정을 한 일도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렇지요? 지난번 나왔던 證人 鄭基用씨는 證人등이 포함된 소위 金大中內亂陰謀事件의 被疑者들이 警察 그러니까 軍搜查機關段階에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檢察段階에 와서는 모두 순순하게 自白을 했다 이렇게 證言을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우선 證人은 中央情報部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證人 李信範 예. 合同搜查本部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때에 被疑者訊問調書를 대략 몇번 정도 꾸몄습니까?

○證人 李信範 몇번인지 기억이 전혀 안 나고요. 거의 매일 똑같은 것을 쓰게 하고 찢어 버리고 또 쓰게 하고...

○李仁濟委員 하여튼 몇십번 받았지요?

○證人 李信範 몇십번 받았읍니다.

○李仁濟委員 그것은 누군가가 그러한 내용의 被疑者訊問調書로서는 公訴維持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搜查官들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그 公訴維持가 가능하도록 요건 사실을 맞추어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시 자꾸 꾸민 것이지요?

○證人 李信範 제가 그때 듣기를 왜 자꾸 이러느냐 그랬더니 3층에 軍法務官이라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搜查官들이 불평을 하면서 法에 이것이 안 걸리니까 화염병도 만든 거로 하고 폭력화한 거로 하라고 이래가지고 軍法務官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搜查官들이 불평을 하면서 저를 고문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렇습니까? 당시 鄭基用證人은 普通軍法會議 首席檢察部長으로서 軍檢察官들의

말하자면 제일 높은 책임자였는데도 자기는 中央情報部에 간 일도 없을 뿐만 아니고 軍搜查機關員들하고 이 事件搜查에 관해서 협의한 일도 없다고 아주 딱 잘라서 證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시 조사하던 軍司法警察官들이 3층에 와 있었다고 하는 檢察官들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십니까?

○證人 李信範 80年7月인데도 鄭基用씨 하고 밑에 있던 김대곤大尉 그리고 정인봉大尉 이런 檢察官들입니다.

○李仁濟委員 그사람들이 위에 와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證人 李信範 예. 틀림없읍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와서 기왕에 받아 놓았던 被疑者訊問調書內容을 다시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자백을 받기 위해서 軍搜查機關員들이 證人을 포함한 被告人들은 被疑者들을 더 가혹하게 고문했다는 것이지요?

○證人 李信範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檢察에 送致된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證人 李信範 80年7月11일에 陸軍矯導所로 送致된 것이 檢察送致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은 檢察에서 순순히 자백을 안 했다고 그랬지요?

○證人 李信範 처음에 제가 완강히 거부를 하고.....

○李仁濟委員 완강히 거부했지요? 그러면 다른 被告人들은 어땠는지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證人 李信範 제가 듣기로는 송지원동지가 매우 강하게 調書作成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예. 적어도 證人하고 송지원被疑者만은 檢察에서 절대로 자백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證人 李信範 예. 끝까지 자백을 안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鄭基用씨한테 직접 訊問調書받았습니까?

○證人 李信範 김대곤大尉가 했는데요 鄭基用씨가 한 두어 번 제가 조사받는 방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자백해 달라고 권유한 일이 있

읍니까? 鄭基用씨가……

○證人 李信範 鄭基用씨가 하지는 않고 그 밑에 그사람의 지시를 받은 法務官이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적어도 鄭基用씨는 자기수하에 있는 檢察官들이 證人을 조사함에 있어서 證人이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지요?

○證人 李信範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은 裁判을 받았는데 裁判받는 중에 혹시 제3者로부터 公訴事實을 자백해 달라 시안해 달라고 이렇게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李信範 80年8月16日 새벽 두 時頃으로 기억을 합니다. 陸軍矯導所에서 저를 깨워 가지고 목욕탕옆의 골방으로 끌려 갔습니다. 거기에 최태곤課長하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예라고 여덟번만하면 다 잘 해결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만일 말을 안 들으면 네 신상에 매우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公判이 몇 번이나 진행되는 때였습니까?

○證人 李信範 8月14日 公訴狀 낭독이 있고 나서 그 다음 公判이 진행되기 전에 그랬고 두번째 公判이 열렸을 때 法廷뒤로 저를 끌어내서 똑같은 사람들이 國保委常任委員長도 알고 있는 일인데 네가 여기서 협조하지 않으면 참으로 견뎌내기 어려울거다 하는 협박을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협박하던 그 사람들이 崔圭夏씨가 곧 大統領職도 그만둔다 이런 말도 했어요?

○證人 李信範 16日 새벽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책상을 치면서 제가 한 두세시간 협조 못하겠다고 버티니까 崔圭夏도 그만두는 판에 네가짓 것들이 뭔데 협조를 거부하느냐 이라고 책상을 치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그와 같이 협박을 당한 被告人이 證人이외에 또 있습니까?

○證人 李信範 제가 아는 한 金相賢證人과 沈載哲군도 그런 협박을 당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은 첫 公判에서 戒嚴軍法會議에 裁判權이 없다 이런 裁定申請을 했다고 그랬지요?

○證人 李信範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證人 李信範 첫째로 戒嚴宣布가 法에 규정된 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효고 둘째로 金大中씨에 대한 國家保安法 違反은 73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80年 軍法會議에서 논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지 않고 저에 대한 內亂陰謀罪도 필요적으로 軍法會議에 회부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法院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民間人을 軍法會議에 회부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裁定申請한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예. 裁判記錄을 살펴보니까 裁判部忌避申請도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證人 李信範 저희가 신청한 證人은 거의 받아주질 않고 말하자면 檢察側얘기만 들어주기 때문에 裁判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李仁濟委員 공정한 裁判을 하지 않기 때문에 忌避申請을 했는데 원래 忌避申請을 하면 軍法會議法에 따라서 재판을 停止하고 忌避申請의 適否를 다른 裁判官들이 裁判하게 되어 있지요?

○證人 李信範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급속을 요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公判을 진행했지요?

○證人 李信範 예.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證人 李信範 그때 저희 생각에는 金大中씨를 빨리 처형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저희도 빨리 징역으로 보내야 겠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李仁濟委員 예. 다음 證人은 그러면 5月17日 이후에도 계속 지명수배하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光州에서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證人 李信範 5月19日頃에 제가 잘 아는 분이 光州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李仁濟委員 5月19日頃에 알았습니까?

○證人 李信範 예.

○李仁濟委員 이 聽聞會는 光州의 진상을 밝히는 일이고 또 오늘까지도 光州 事態의 발원인을 주로 檢證하는 聽聞會입니다. 證人은 大學時節부터 이 80年 당시까지 그야말로 긴 세월동안 朴正熙軍事獨裁政權 그리고 주로 그런 獨裁權力과 싸워온 學生運動 그리고 在野運動에 한 核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묻겠는데 光州에서의 충돌 그리고 그로인한 참극은 물론 무슨 계엄군이 초기에 과잉진압했기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일시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볼때 民主化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運動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볼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李信範 朴正熙씨가 죽었을때 조속히 民主化를 하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戒嚴을 장기화했기 때문에 學生運動이나 在野運動에서 얘기하기를 5月 20日…… 만일에 休校令이 내려지면 各都市에 어느어느 지점에 모여서 示威를 벌이겠다는 예고가 이미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戒嚴을 擴大하고 戒嚴軍을 擴大配置했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불상사가 날 수 밖에 없고 어디에선가 참극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戒嚴을 擴大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戒嚴擴大措置가 원천적으로 光州民主化運動의 참극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仁濟委員 한가지만 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辛基夏 마지막 質問으로 해주십시오.

○李仁濟委員 證人の 裁判記錄 가운데 上告理由書를 보니까 證人등 被告人들이 軍事法廷에서 裁判을 받을때 軍搜查情報機關이 法廷에서 裁判長席까지 올라가 가지고 被告人들을 전원 퇴장시키라고 이렇게 강압적인 지시 비슷한 행위를 한 그런 만행의 흔적이 보이는데 그 經緯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證人 李信範 裁判을 받을 때 앞줄에는 陸軍矯導所에 있던 여섯사람이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앞줄 맨 오른편에 앉았는데

제 바로 옆이 辯護人席인데 辯護人席 끝에 늘 保安司令部 合同搜查本部에서 나오는 요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늘 쪽지를 주고 받으면서 裁判을 일종의 指揮監督을 했는데 文益煥牧師를 퇴장시키라고 그래서 어찌 누구는 퇴장시키고 누구는 안시키느냐고 유근환씨한테 제가 항의를 했더니 그 소동이 벌어졌는데 保安司令部 要員이 法臺위에까지 올라가더니 하는 말이 전원 퇴장시키시오 뭐 이러니까……

○李仁濟委員 누구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지요?

○證人 李信範 裁判長한테 그런 지시를 했지요. 그래서 제가 上告理由書에 法官이 아닌 者가 裁判에 간여한 違法이 있다 이렇게 다룬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더 訊問할 委員안 계시면 이상으로 李信範證人에 대한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李信範證人 證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韓尙錫證人の 證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證言을 듣기 전에 關聯法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에는 證人이 同法을 違反하면 處罰할 수 있는 規定과 이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證言內容에 대하여 不利益을 받지 않는다는 保護規定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證人 宣誓가 있겠습니다. 證人은 앞으로 나오셔서 宣誓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韓尙錫

(證人宣誓)

○委員長代理 辛基夏 證人席으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韓尙錫 證人에 대해서 民主正義黨에 배정된 시간이 65分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訊問을 하시되 시간을 可及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 訊問으로 民主正義黨의 權海玉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25分입니다.

○權海玉委員 民主正義黨의 權海玉委員입니다.

韓尙錫 證人께서 받듯게 이래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訊問에 있어서는 本委員이 묻는 말에 간결하게 答辯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은 80年5月 光州事態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證人 韓尙錫 예.

○權海玉委員 무슨 嫌疑로 조사를 받았습니까?

○證人 韓尙錫 內亂 重要任務 從事罪 및 戒嚴法 違反으로 裁判을 받았습니다.

○權海玉委員 實刑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韓尙錫 예.

○權海玉委員 얼마나 받았습니까?

○證人 韓尙錫 12年 받았읍니다.

○權海玉委員 당시 父親께서는 靈光邑長으로 계셨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韓尙錫 예. 사실입니다.

○權海玉委員 지금도 公職生活을 하고 계십니까?

○證人 韓尙錫 지금은 그만 두시고요 別定 郵遞局을 經營하고 계십니다.

○權海玉委員 證人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證人 韓尙錫 불편한 관계로 個人 事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査察은 받고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예. 몸이 불편하십니까?

○證人 韓尙錫 生活이 불편합니다.

며칠전에도 情報課에서 전화했더만요.

○權海玉委員 예. 證人은 80年2月 中순경부터 全南大學校 自律化 推進委員長 말은 사실이 있지요?

○證人 韓尙錫 全南大學校 學園自律化 推進委員長을 맡은 기억이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學園自律化 推進委員長을 맡아 御用教授 退陣問題와 總學生會 結成과 復活을 위해서 활동을 하셨지요?

○證人 韓尙錫 예. 學園民主化를 위해서 學園自律化를 위해서 활동했었습니다.

○權海玉委員 證人은 學園自律化 推進委員長을 하면서 全南大學校 總學生會가 結成되어 會長에 박관형씨를 選出하셨지요?

○證人 韓尙錫 제가 選出한 것이 아니고 전체 學生들의 民主投票에 의해서 당신이 되었

읍니다.

○權海玉委員 예. 鄭東年씨하고 모두 復籍學生들하고 함께 박관형씨를 選出했지요?

○證人 韓尙錫 제가 學園自律化推進委員會를 맡을 당시에 혹시 全南大學校 總學生會長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었읍니다.

그랬는데 總學生會選舉에 임하면서 4月3日 學園自律化推進委員會 解體聲明을 발표하고 제가 選舉에 관여하지 않았읍니다.

○權海玉委員 그렇습니까?

박관형씨가 學生會長으로 選出된 후부터 證人은 秘密企劃室長을 맡아서 일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韓尙錫 그것은 台搜團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常識的으로 생각할 때 學生運動을 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總學生會에서 秘密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職責이 있다는 것은 常識的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權海玉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企劃室이라는 명칭은 있었지요?

○證人 韓尙錫 企劃室이라는 명칭은 정확히 없었고 企劃「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權海玉委員 企劃室이나 企劃「팀」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韓尙錫 왜냐 하면 저희들이 全南大學校에서 開校記念日인 용봉祝祭할 때도 으레 그런 企劃委員會를 만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民主化성회를 하는데 있어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조언하는 企劃委員會를 한 석은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企劃委員會를 만들었으면 企劃委員會에서는 그러면 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證人 韓尙錫 저희가 5月8日 民主化성회를 했었는데 그 民主化성회를 하는데 있어서 諸盤 總學生會가 보다 질서있고 평화롭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權海玉委員 예. 되었읍니다.

證人은 80年5月 작성된 自由「노트」라고 아시지요?

○證人 韓尙錫 예. 自由라는 표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노트」라기 보다는 「메모」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權海玉委員 이것 證人께서 쓰신 것이지요?

○證人 韓尙錫 예. 송선태군하고 저하고 같이 썼읍니다.

○權海玉委員 제일 먼저 부분에는 송선태씨가 쓴 것이고 後部分에 대해서는 證人께서 쓰셨지요? 이것 기억나시지요?

○證人 韓尙錫 예. 기억납니다.

저희가 裁判받을 당시에 1審에는 없었는데 2審 裁判때 檢察側의 證據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그 自由「노트」로 裁判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이 自由「노트」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있지요?

○證人 韓尙錫 예.

○權海玉委員 그러면 이 「노트」에 5月3일부터 며칠까지 작성했습니까?

○證人 韓尙錫 5月8일부터 아마 16日午前까지로 기억합니다.

○權海玉委員 이 自由「노트」 내용에 보면 光州事態에 대한 實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資料가 되기 때문에 本委員이 이 自由「노트」에 표기된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學生運動은 70年代 維新體制를 拒否하고 維新殘黨과 一部 獨占資本 官僚 帝國主義資本을 제거하여 自由民主主義와 勞動 農民現場에서 모순을 극복 民衆運動에 수렴하여 民衆解放과 民族統一에 수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이지요?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보내 드릴까요?

立法調査官!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社會는 外國資本이 蠶食하고 있는 新植民地主義의 理論에 입각하여 植民地 反封建的 社會로 규정하고 國內「과소」獨裁 可能性이 있으므로 外國獨占資本 및 買辦資本을 척결하고 統一에 대한 觀念論을 지양하여 民衆이 主體가 된 反帝 反封建的 民主主義 革命을 해야 하는데 民衆革命의 主體는 學生 勞動者 農民 市民 知識人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있으며 革命은 「부르조아」民族革命이라고 되어있는데 證人은 이것을 쓴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지요?

○證人 韓尙錫 예.

○權海玉委員 證人! 이와 같은 이론은 左傾 意識化된 大學生「그룹」인 자민투 삼민투 민민

투의 이론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 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韓尙錫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權海玉委員 어떤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韓尙錫 다시 말해서 결국 그때 당시에 學生運動을 한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70年代의 모순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自由民主主義 革命을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民主化의 거대한 흐름이 80年代 初盤에 大學街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상식이고 지금 나오는 在傾意識化라는 것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의 學生運動의 理論이 그정도 되었다는 것을 너무 비약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權海玉委員 되었습니다. 事實與否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證人은 10月16日以後 學內外를 통하여 學生運動을 주도하고 70年代 學生運動 方向의 설정과 一部 在野 政治圈과도 연계하여 學內外 시위와 과격한 행동등 상당히 의식화된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韓尙錫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뒷부분에 보시면 결국 시위의 方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市民을 끌어들이는 方法에 있어서 非暴力 平和的 시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市民을 끌어들이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 하고는 전혀 틀릴 것입니다.

理論은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고...

○權海玉委員 되었습니다.

證人은 아까 말한 自由「노우트」 1「페이지」하고 2「페이지」에 당시의 상황분석이라는 題目下에서 外的 상황분석으로 政治的 經濟 社會 革命의 可能性과 日程을 타진하고 社會勢力 및 政治日程을 파악함에 있어서 軍部의 方向을 檢計하고 外勢의 변수를 감안하여 勞動者 農民의 의식정도를 측정하는 등이 있는데 內的 상황분석으로 社會人士와 접촉하고 自體分析을 하고 情報入手와 保存補完問題를 檢討하고 學內問題를 社會化함에 있어서 기존 社會組織을 활용하는 이런 內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分析方向에 대해서는 서울쪽과 연결

하여 日程을 맞추고 朝鮮大 專門大學 高等學校 各 大學과 연계하여 湖南의 學生運動圈을 만들고 「가톨릭」農民會와 基督教農民會를 이용하여 農民運動을 유발하고 國民聯合과 연계하여 社會勢力의 지지를 얻으며 學園에는 組織 擔當者를 두어 分擔케 하는 것으로 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韓尙錫 꿈보다 解夢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農民이나 勞動團體를 이용하고 또는 어떤 것을 유발하고 어떻게 뒤 배치하고 이런 것을 權委員님이 너무나 해석을 잘하셨네요. 저희들이 쓸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權海玉委員 아니 證人께서... 自由「노우트」에 記載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보기가 힘이 들어서 우선 제가 옮겨서 쓴 것 뿐입니다.

○證人 韓尙錫 그러니까 크게 누워서 저희들이 維新體制가 獨裁者 朴正熙씨가 피살됨으로 인해서 舊體制 극복이 改憲論議와 더불어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크게 外的으로 볼 때 일단 政治 經濟社會 文化 諸般 社會階層 내지는 社會에서 維新體制를 거부해서 民主化運動을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內的으로는 저희들이 그러한 舊體制에서 여러가지 형성되어 있던 세력들과 또는 상황들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80年代의 봄 民主化를 이룰 수 있는냐의 검토는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용이라든가 유발이라든가 지지라든가 이런 것은 좀 너무 해석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權海玉委員 예. 됐습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證人이 이 自由「노우트」에 계획한 內的 外的방향 등의 분석을 해보면 어느 時期에 全國大學을 연결하여서 民衆蜂起를 일으키로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용의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실이지요?

○證人 韓尙錫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작성할 때 5月8日인데 저희들이 4月까지는 學內「이슈」를 學內에서 學園民主化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5月2日 서울大學校에서 民主化總會를 하면서 네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네 가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5月8日 全南大學校와 民主化總會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우트」를 작성했다는 것을 착안해 주십시오.

○權海玉委員 예. 됐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조사한 證人이 5月3日부터 5月17日까지 활동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證人 韓尙錫 예.

○權海玉委員 5月3日 證人은 全南大圖書館 앞에서 全南大生 3,000名을 모아놓고 全斗煥씨는 물러가라 戒嚴解除 二院執政府制構想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反政府示威를 大大的으로 한 사실이 있지요?

○證人 韓尙錫 5月3日부터 그 口號가 벌써 나왔을까요?

○權海玉委員 證人은 그렇게... 계획된 글에서 나와 있습니다.

○證人 韓尙錫 아닙니다. 5月3日이면 全南大學校 상황에서 御用教授 退陣을 위한 농성을 저희들이 끝내면서 非常學生總會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그 口號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5月8日부터 그 口號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權海玉委員 예. 됐습니다.

그러면 5月9日 서울大學校總學生會 沈載哲會長이 光州에 내려온 사실이 있지요?

○證人 韓尙錫 예.

○權海玉委員 5月9日 證人은 哲學科 時局聲討를 주도하고 全南大學校 總學生會 會館 個人 檢査室에서 송선태 오홍상 박관영 등과 서울大學校 總學生會長인 沈載哲씨를 만나 서울大學校에서는 15日을 기해서 街頭示威를 벌일 것이나 全南大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街頭進出하라는 提議를 받고 이에 적극 호응하기로 결정을 하였지요?

○證人 韓尙錫 아 그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沈載哲君이...

○權海玉委員 예. 그 결정된 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證人 韓尙錫 아니... 적극 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5月8日 저희들이 民主化성회를 했었는데 沈載哲君이 그때 당시에 아마 身體檢査를 하러 내려왔다가 저희들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서울大學校에서 네 가지 결의를 했는데 첫째는 5月14日까지 非常戒嚴解除하라 둘째는 解除하지 않

을 경우에는 15日 非常時總會를 열어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 세제는 休校令을 내리면 午後 3時에 永登浦「로타리」에서 모이겠다. 세제는 각 單科大學別로 非常民主化성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도대체 沈載哲君이 왔을 때 왜 5月14일까지 非常戒嚴解除하라고 時限을 정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 대목이 아마 自由「노우트」에 나와 있습니다. 自由「노우트」를 보시면 沈載哲君이 와서 하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權海玉委員 예. 됐습니다. 答辯만 해주시면 됩니다.

○證人 韓尙錫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로 기억합니다.

(辛基夏幹事, 文東煥委員長과 司會交代)

○權海玉委員 예. 됐어요.

그리고 5月10日경 證人은 光州圈 各專門大學에 學運關委員會를 파견해서 油印物配布 상황과 분위기를 점검한 사실도 있지요? 答辯만 하면 됩니다. 있나 없나 하는 答辯만 해주시면 됩니다.

○證人 韓尙錫 그사람들의 주요 활동은 5月3日 박철웅 火刑式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朝鮮大學校의 폭력 사태가 나가지고 거기에 調査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예. 좋습니다. 5月12日 全南大 總學生會議室에서 박관영 양광숙과 함께 維新 잔당들이 既得權 연장을 위해 안보를 빙자한 강경책을 쓸 것으로 생각하여 高校生 市民을 가담시킴으로써 學生革命을 일으킨 후 過渡政府를 전복하고 새 政府를 수립하여 在野人士와 執權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이 있는데 실이지요?

○證人 韓尙錫 5月12日입니까?

○權海玉委員 5月12日입니다.

○證人 韓尙錫 12日 어디에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權海玉委員 全南大 總學生會館 會議室입니다.

○證人 韓尙錫 5月12日 總學生會館에서 그런 모의를 했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權海玉委員 예. 되었습니다.

證人은 金大中씨가 정상적인 方法으로 이 執權이 어렵다고 보고 당시 釜馬事態 舍北事

態 東國製鋼事態 등으로 各 社會 계층의 不滿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全國的으로 學生示威가 과열되고 있는 것을 보아 學生示威를 선동하게 되면 이를 저지하는 軍警과 충돌하여 流血事態를 일으켜 이에 흥분한 市民을 加勢시켜 對政府鬭爭를 전개하여 過渡政府를 전복시키고 金大中씨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民衆政府를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사실이지요?

○證人 韓尙錫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그야말로 합산해서 딱 脚本을 써주어가지고 한 內容을 읽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自由「노트」를 보시면 10「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沈載哲君이 왔을 때 하는 代目에 市民을 끌어 들이는 방법 출그어서 平和的 非暴力的 方法 流血事態를 지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沈載哲君이 왔었던 9日 作成한 것입니다.

그러면 9日 저희들이 非暴力的이고 平和的이고 流血事態를 지양한다고 되어있었는데 搜查機關들이 그렇게 作成을 했어요.

그래서 2審때 이 自由「노트」가 檢察側證據로 채택이 됐는데 被告側의 證據로 채택하고 해서 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證據로 채택하면 方금 權委員이 제시하시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合搜團에서 조작했다는 내용의 反證이 됩니다.

○權海玉委員 예. 됐습니다. 時間關係로 내가 묻는 말에만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韓尙錫 예.

○權海玉委員 5月17日 證人은 自由「노트」에서 나타났듯이 學園의 人員을 동원하여 5月20日 麗水에서 公聽會를 실시한다는 등의 計劃을 한 것도 사실이지요?

○證人 韓尙錫 아니지요. 여기 自由「노트」를 보시면 日程表에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權海玉委員 自由「노트」에 전부 그것이 記載가 되어 있습니다.

○證人 韓尙錫 아 記載가 되어 있는데 麗水 公聽會에 대해서 이렇게 가위표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 行事が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權海玉委員 예. 됐습니다.

그러면 證人은 말이지요 5月 16日 이후에는



光州에 있지 않았지요?

○證人 韓尙錫 5月16日이후가 아니고 5月18日 새벽에 合搜團에서 拳銃들이대고 軍貨발로 잡으러 와서 도망갔습니다.

○權海玉委員 예. 도피했지요?

○證人 韓尙錫 예. 피난했습니다.

○權海玉委員 그러나 5月 18日부터 유발된 光州事態의 狀況을 직접 體驗하지는 않았지요?

○證人 韓尙錫 예?

○權海玉委員 18日부터 光州事態에 대한...

○證人 韓尙錫 예. 서울에 피해 있었습니다.

○權海玉委員 그러면 5月18日 全南大學校正門 앞에 證人 등이 謀議 計劃한 대로 光州事態가 최초 勃勃하게 되었습니다.

○證人 韓尙錫 그 관계에 있어서요.

그때 저희들 裁判할 때 崔병진군이 檢察側 證人으로 나와서 證言한 代目이 있습니다. 맨처음 5月18日 이 충돌이 있었을 때 空輸部隊가 두들겨서 했다. 그리고 이번에 그 代目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데모」하러 온 學生들이 아니고 공부하러 온 學生인데 지난 번에 周永福씨는 위 學生들이 가방에다 돌을 가지고 와서 「데모」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常識이하의 發言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 學生들이 물러왔을 때 空輸部隊가 쫓았어요.

그 과정에서 自轉車를 타고 와서 이 全大正門앞에 있는 다리난간에 이렇게 기대서 있었는데 미처 못 피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방망이로 머리를 쳐가지고 2名이 쓰러졌어요. 그 쓰러진 學生을 學校안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거기에서부터 學生들이 격해 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權海玉委員 그러면 證人께서 18日이후는 光州에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음은.....

○證人 韓尙錫 예. 잘 모릅니다.

○權海玉委員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證人 韓尙錫 예.

○權海玉委員 예. 각종 惡性流言蜚語가 난무하는 가운데 武器가 奪取되고 高速「버스」自動車 軍隊車輛이 탈취되고 심지어 公共機關까지 점거된 것을 證人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證人 韓尙錫 아마 이 사진을 보니까요 지금 民正黨의 權委員님이 質問하신 내용을 보면 도대체 왜 그렇게 된것은 안 나오고.....

○權海玉委員 이봐요 證人!

○證人 韓尙錫 예.

○權海玉委員 證人은 本委員이 質問한데만 答辯해 주시면 됩니다.

○證人 韓尙錫 예.

○權海玉委員 이러한 불행한 사태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證人과 같은 反帝 反封建民衆革命論에 심취된 運動學生들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앙한 學生들께까지 선동하여 市民 農民 勞動者階層을 과열시켰던 이 행동을 바로 이 自由「노트」에 記載된 證人등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本委員이 이와같이 證據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時間關係로 本委員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證人 韓尙錫 民正黨에서 申請한 이유를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金泳鎮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訊問時間은 10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예. 證人은 80年 당시 全南大學校總學生會學園自律化推進委員會 委員長을 맡아서 활동하셨다고 證言하셨지요?

○證人 韓尙錫 예.

○金泳鎮委員 證人은 나라의 民主化와 學園民主化運動에 참여하다가 獄苦를 치르신 일이 있지요?

○證人 韓尙錫 예.

○金泳鎮委員 앞서서 訊問하신 그 訊問內容중 거의 전체가 學生運動을 왜곡시킨 合搜團이나 檢察의 公訴狀이나 그 起訴內容을 그대로 복사하여 낭독하고 있는 것같은 감이 드는데 證人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證人 韓尙錫 꼭 거기 軍事裁判했을 때 기분이 나네요. 바로 이것이 그 사진입니다마는 여기가 꼭 軍事法廷같은 그런 기분이 나요.

○金泳鎮委員 예. 그런데 證人은 民正黨에서 申請해서 지금 오늘 聽聞會에 出頭했지요?

○證人 韓尙錫 예.

○金泳鎮委員 10·26 직후 1979年 10月27日부터

11月18일까지 23日間 全國大學에 休校令이 내려졌습니다.

證人은 당시 大學에 休校令이 내려진 그 具體的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證人 韓尙錫 非常戒嚴自體가 宣布된 것도 좀 어색합니다마는 非常戒嚴이 宣布되었다고 해서 休校令이 내릴 이유가 없었고 아마 大學에 休校令이 내린 이유는 결국 維新體制에 항거했던 가장 강력히 항거했던 學生運動勢力들을 잠재우기 위한 일단 學校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金泳鎮委員 1980年당시 소위 온 국민의 영화와 같은 성원속에 民主化의 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全南大學校는 學園自由化를 추진하기 위해서 學園自律化推進委員會를 조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證人은 당시 委員長을 맡았습니다.

이 學園自律化推進委員會의 역할과 구성 및 해체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또 강제로 해체를 당하게 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證人 韓尙錫 강제로 해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역할을 말씀드리면 그때 學徒護國團이라는 非民主的인 學校에서 任命制의 學生代表機構가 있었는데 學園의 民主化를 위해서는 自律的인 總學生會構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總學生會를 구성하고 學生活動을 보장하고 學內言論을 실현하고 또한 學園査察이나 相談指導官室 또는 兵營集體訓練 이런 諸般 學內的 他律的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구성은 80年2月14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80年4月3日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總學生會는 4月9日 출범해 가지고 4月19日 學校總長님으로부터 認准書를 받아서 正式으로 4月19日 시작이 됩니다.

○金泳鎮委員 예. 당시 學園自律化推進委員會에 의해서 學內的 民主化도 중요했지만 나라의 民主化를 위해서 學生運動이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年5月 學生들의 民主化要求가 한창 진행중일 때 급기야 양심적인 教授들까지도 弟子들의 그런 질서정연하고 非暴力的인 의로운 행동에 동참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음

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韓國現代史에 있어서 4·19이후 최초로 教授들이 街頭로 나선 歷史的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되는데 證人은 80年5月14日 全南大學校 教授團이 光州市內 錦南路로 질서있는 평화적인 街頭示威를 하였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證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런 示威가...

○證人 韓尙錫 예. 저희들이 5月14日 全南道廳 앞에서의 集會光景입니다. 분수대에 大型太極旗를 걸고 그날 비가 몹시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學生은 두말할 것도 없이 市民들도 흠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示威가 끝나고 나서 大型太極旗를 앞세우고 錦南路에서 大學教授님들이 줄을 서고 그 다음에 大學院生 그리고 工科大學부터 시작해 가지고 7-1順으로 大學生들이 줄지어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街頭示威입니다. 다시 말해서 4·19이후에 大學教授님들이 街頭에 이렇게 나오기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市民들도 저희들이 달려 가는데 북이 마를 것이라고 물을 내놓기도 하고 또 口號를 외치면 박수도 치고 또는 저희들 農樂을 앞세웠는데 農樂에 맞추어 춤도 추고 그리고 자진해서 市民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非常戒嚴解除 내지는 全斗煥씨의 退陣 기타 民主日程 政治日程 뭐 단축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金泳鎮委員 예. 당시 教授들은 弟子들의 애끓는 民主化運動을 더 이상 앉아서 지켜만 보고 坐視할 수 만은 없었다 그래서 太極旗를 앞세우고 愛國歌를 부르면서 弟子들과 함께 民主化行進에 同參했다고 당시 이 平和進行에 참여했던 全南大學校의 명노균教授 송기숙教授 김동운 教授 이광우 教授 그리고 현재 全南大學校의 總長을 맡고 있는 오병문 教授 당시에 民主教授協議會 會長이었던 정일석 教授등은 證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教授團 示威가 요구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었고 또 學生들의 示威와 특별하게 다른 점에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證人 韓尙錫 學生들의 示威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때 당시 명분없는 非常戒嚴解除 그리고 全斗煥씨와 申鉉鎬씨등 물지각한 사람 退陣 그리고 自由言論 實現 또는 民主言論

實現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國民들의 요망이 있었다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최소한도 앞으로 大統領 選舉를 내손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大統領을 내손으로 뽑자. 둘째는 이제 軍人은 다시 政治를 좀 안했으면 좋겠다. 세째는 維新黨이 살 길이라고 떠들었던 殘黨들을 民主化의 봄에서 좀 자숙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그때 民主化를 외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金泳鎮委員 당시 道廳 앞에서 질서있는 그런 平和의인 示威를 마친 후에 全南大學校의 學生會 幹部들은 高性能 「마이크」를 통해서 거기 참석한 모든 學生들과 市民들에게 한 장의 휴지도 남김없이 다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질서있게 뜨거운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愛國歌를 부르면서 解散하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요?

○證人 韓尙錫 예. 그것은 新聞에 報道된 事項입니다.

○金泳鎮委員 80年5月18日 午前 10時에 100餘名の 全南大學生들이 全大 正門 앞에서 空輸部隊員과 流血衝突이 있었고 바로 이 時點이 光州抗爭이라고 원인이고 內亂行爲가 된 것이라고 當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證人이 아는 5月18日의 全南大 正門에서의 최초의 충돌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韓尙錫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法大 신 某 教授님이 계십니다. 그때 學生課長이셨습니다. 그 분이 休校令을 내려서 學校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空輸部隊가 막았어요. 뭐냐고 하니가 敎職員이다. 職責이 뭐니까? 專任講師다. 專任이고 講師고 지금은 뭐야! 그러니까 法大 學生課長인데 專任講師가 職責이다. 그러니까 전방지대면서 채어가지고 봉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狀況들은 두말 할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金泳鎮委員 證人은 오늘 國民의 위대한 民主化의 힘에 의해서 開催되고 있는 이 聽聞會에 나와서 證言하러 오는데도 방금 말씀에 의하여 情報課의 査察이나 간섭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가요?

○證人 韓尙錫 예.

○金泳鎮委員 아직도 우리 社會에 그런 殘滓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證人 韓尙錫 예.

저는 赦免이 되고 復權이 돼서 저는 잊어버린지 알았어요. 아직도 逆敵으로 몰려 있습니다마는 內亂重要任務 從事인데... 잊어버린 만 하면은 電話를 하고 더군다나 聽聞會 올라오는 판에 또 電話를 하고 民主黨 申請된 것이 저는 무엇때문에 한지도 모르고 계속 피해를 받았는데 또 電話를 하고 지금도 그 래 査察을 해요.

盧泰愚씨 民主化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金泳鎮委員 불행한 時代를 살아오면서 어려운 시기에 學生運動을 주도했던 한 사람으로서 證人은 이제 고난을 극복하고 社會人이 되었는데 그간 催淚彈과 총칼과 악랄한 拷問 搜查를 부끄럼없이 휘둘은 軍事獨裁政權에 대해서 특히 느껴온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證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韓尙錫 결국 저희들이 法廷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內亂 逆敵으로 몰렸기 때문에 證人을 申請을 했었어요. 崔圭夏 大統領과 斗奎煥 保安司令官을 證人을 申請했는데 檢察側에서 棄却시켜 버렸습니다.

그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光州問題를 푸는 真相調查를 하기 위한 이런 聽聞會에 또 안나오고 있던데 그러한 사람들이 저는 확신하는데 內亂犯입니다. 제가 內亂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內亂을 했고 결국 5·17措置가 光州民衆抗爭을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풀지 못했기 때문에 5共和國에 그런 非理가 나왔고 참 말 할 수 없는 非理가 나왔었고 현재의 6共和國에서 계속 「데모」가 있는 것도 결국 正統性問題 내지는 진짜 內亂을 누가 했느냐는 것이 真相糾明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데모」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泳鎮委員 證人께서는 內亂을...

○委員長 文東煥 이것을 마지막 質問으로 해주세요.

○金泳鎮委員 예.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內亂을 일으켰던 그 소위 主謀者들 누군가

가 歷史적으로 명쾌하게 규명이 돼야. 이런 시위도 그리고 催淚彈과 총칼이 우리 國民을 억압하는 그런 시대도 종식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證人 韓尙錫 저희들이 學內外 示威를 했던 것도 非常戒嚴이 명분없이 유지했기 때문에 했었고 政權의 正統性이 잘되고 政治人이 政治를 잘 하면은 學生들이 공부를 하지 「데모」를 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金泳鎭委員 證人이 주장하고 제사는 民主化에 대한 염원은 本委員과 밤늦게 까지 이 聽聞會를 지켜 보고 있는 우리 4千萬國民의 간절한 염원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新民主共和黨의 金仁坤委員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25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仁坤委員 新民主共和黨所屬 金仁坤委員입니다.

證人은 성함이 韓尙錫씨이지요?

○證人 韓尙錫 예.

○金仁坤委員 고생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오늘 證人이 證言을 하시는 가운데 방금 들어 봤을 때 이상스러운 疑懼가 하나 있어서 그것을 먼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아까 번에 同僚委員인 民正黨委員께서 訊問을 하실 때 인재 民正黨에서 저를 證人으로 신청한 것을 알겠습니다 한 얘기를 했는데 民正黨에서 證人을 證人으로 채택된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씀부터 해 주십시오.

○證人 韓尙錫 저는 어떻게 보면 光州特委에서 被害者라고 봐 지는데 加害者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되는 民正黨에서 저를 신청을 하니 제가 그쪽에 돈을 받았느니 買受했느니 별 오해를 많이 받고 항의전화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證言을 맨 처음에 몇마디 들어 보니까 아하! 꼬투리 잡기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證人이 作成한 自由「노트」에 관해서 몇가지

물겠습니다. 證人이 作成하신 自由「노트」는 총 몇 「페이지」이며 그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저도 여기 좀 가지고 있습니다는 아마 이것 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證人 韓尙錫 이게 총 해서 30「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 自由라고 써진 대목은 獨裁나 非常戒嚴으로부터의 自由를 회구했기 때문에 自由라고 써져 있고 이것은 5月8일부터 民主化 성회를 하면서 그때그때 들어오 소식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可及的이면은 維新治下에서 街頭示威를 거의 못했었으니까요. 民主化의 봄이다 하고 街頭示威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질서있고 평화롭게 할 것이냐 하는 示威計劃 내지는 示威한 이후에 어떤 반성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證人은 80年5月18日이전까지는 光州에 있었지요?

○證人 韓尙錫 예.

光州에 있었읍니다.

○金仁坤委員 證人이 作成한 自由「노트」 12「페이지」에 가방끈 꼬리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證人 韓尙錫 이게 참 재미있는 용어였는데요. 저희들이 당시에는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民主化 성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民主化성회를 하다 보면은 결국 가방을 들고 하게 되는데 이 가방을 들고 하다 보면은 결국 가방이 서로 섞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高速「버스」에나 貨物에 꼬리표를 달듯이 각자 가방에 꼬리표를 달면은 저희들이 수업하면서 民主化 성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다 해서 그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金仁坤委員 알았습니다. 證人이 作成한 自由「노트」에 平和的인 구절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몇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까?

○證人 韓尙錫 저희들이 작성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休校를 자초해서는 안된다든가 또는 市民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非暴力 平和的 示威여야 된다. 유혈사태를 사양해야 한다. 示威方法은 연좌농성이나

성토대회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계속 당했던 대목입니다.

화염병 각목 쇠「파이프」 둘 이런 폭력시위들 준비를 해놓지 않았느냐 라고 했는데 그 대목이 30「페이지」 되는 동안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여기에 보면 女學生 6명이 흰장갑을 끼고 대형 태극기를 준비하고 나머지 人員은 머리띠에 태극기를 두른다든지 또는 소금을 준비해서 일사병에 쓰러지는 學友들을 도와준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목 대목이 그때그때 어떻게 平和的으로 할 것인가 하는 대목을 썼던 흔적들입니다.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證人は 5月18日 이전까지는 光州에서 있었다고 했지요? 그 당시에 80年 5月 당시에 學生들이 주장한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테모」를 할 때...

○證人 韓尙錫 아까도 얘기 나왔읍니다마는 오전에도 그런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非常戒嚴은 朴正熙씨가 被殺되고 大統領 유고라는 상황때문에 선포 되었습니다. 그런데 崔圭夏씨가 大統領에 당선되어서 취임이 되면 이제 非常戒嚴의 선포요건은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명분없는 非常戒嚴 해제하러가 첫째였습니다. 그것은 5月2日 서울大學校 民主化總會를 기점으로 해서 全國에 非常戒嚴 명분 없는 非常戒嚴 해제를 요구했고 아울러서 그때 당시의 維新體制를 극복하기 위해서 民主化의 봄이 되고 維新體制가 잘못되어 있는 憲法을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戒嚴解除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저해되는 것이 言論統制였습니다.

憲法을 바꾸자는 논의를 하려면 言論이 자유스러워서 서로 의견이 교환되어야 하는데 言論을 統制하니깐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 言論을 統制하고 있는 것이 非常戒嚴이었고 그 非常戒嚴의 戒嚴當局의 實勢는 全斗煥 保安司令官이었습니다.

왜냐 4月14日 中央情報部長署理를 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實勢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民主化를 위해서는 全斗煥 당시 保安司令官을 그대로 하든가 中央情報部長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카터」도 비난했듯이

한 사람이 政府와 軍部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그래서 全斗煥씨보고 퇴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申鉉禧 물러가라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래서 그 당시에 全斗煥퇴진을 주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 學生들이 5月14日까지 非常戒嚴 해제를 요구하고 休校令에 대한 행동 요령으로 全南大 앞에서 10時에 모이자고 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韓尙錫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5月2日 서울大學校에서 民主化總會를 하면서 休校令이 내리면 오후 3時에 永登浦 「로터리」에 모인다는 것이 5月3日에 新聞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休校令이 내리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한 것은 休校令이라는 것이 5·17 이후에 그런 학살 조치가 아니고 維新 치하에서 高大에 내렸던 위수령 발동이라든가 또는 조금전에 言論에 나왔던 10·26이후의 休校措置라든가 이런 것으로 學生들이 떠들면 일단 休校措置 내려서 집에 보내면 된다는 사고도 學生들의 民主化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非常戒嚴을 유지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休校令이 내리면 10時에 정문 앞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道廳앞에 12時에 모이겠다 이것은 延大에서 新村「로터리」 高大에서 淸涼里「로터리」 전부 주장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新聞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당시 學生들의 시위에 대한 光州市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韓尙錫 民和委에 證言을 나가신 당시 道廳局長님이 계십니다. 안병화局長님이 지난 10月10日頃 作故하셨습니다. 그 분이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그때 당시 非常戒嚴治下에서 가장 治安을 상의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14·15·16日 3日間에 걸쳐서 저희들이 14日은 道廳앞에서 8,000名이 모였고 그리고 15日은 1萬5,000名 16日은 3萬名이 모였었습니다. 東亞日報에는 5萬名이 市民까지 합세해서 했었다고 왜 있습니다마는 그 때 저희들이 民主化 성회를 할 때 市民들이 항시 붙어 있었고 警察들은 주위에서 저희들 구호가

움을 때 박수도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示威할 때 「에스코트」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5·17 東亞日報에도 나옵니다마는 아마 言論統制가 되어서 學生들이 「데모」하면서 휴지줍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데모」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5月17日 東亞日報에는 全南大學校에는 그렇게 휴지줍고 示威隊가 지나고 나면 거리가 깨끗했다. 그런 記事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市民들도 아! 學生이 옳다 全斗煥이 朴正熙 양아들이구나 學生들이 옳고 全斗煥 물러가야 한다. 非常戒嚴이 解除되어야 한다. 그렇게 인식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仁坤委員 예. 알겠어요. 80年 5月16日에 光州에서 있었던 蠟燭示威가 있었지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說明히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韓尙錫 제가 이 책을 자꾸 인용합니다마는 이 책을 원하시면 책을 갖다 왔으니까 보셔도 좋습니다. 바로 蠟燭示威가 이 광경입니다. 이 광경이고 아마 進行하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당시 저희들이 밤 10時40분에 끝났습니다마는 그 때 5月16日이 維新獨裁가 시작됐던...

○金仁坤委員 委員長! 주위가 산만합니다. 民主黨席에서 시끄러워서 못듣겠습니다. 주위를 환기시켜 주세요.

○委員長 文東煥 조용히 하세요.

○金仁坤委員 말씀하세요.

○證人 韓尙錫 그래서 5·16 「쿠데타」에 대한 火刑式까지 兼해서 蠟燭示威를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때 學校 教授님들이 全體 參席한 것은 물론이고 저희들 示威隊가 市街 行進할 때 警察이 「에스코트」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道廳앞에 돌아와서 集會할 때 國軍將兵에게 보낸 「메시지」를 낭독했었고 또 學生들이 만약에 우리의 民主化 要求를 하고 있는 이 시각을 北傀가 오관한다고 하면 國民軍으로 入隊하겠다 라는 署名까지 받았었고 또 「메시지」를 낭독했고 또 教授님들이 警察들이 고생했다. 해서 10萬원을 걷어 가지고 음료수를 사서 노고를 치하하도록 이렇게...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學生 教授 市民이

渾然一體가 돼서 나라를 사랑하고 民主化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었다. 그 말씀이죠? 證人이 作成한 自由「노트」를 보면 19「페이지」에는 15日 戒嚴軍이 進駐하였음 이라고 되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韓尙錫 예.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 自由「노트」라는 것은 그때그때 들어온 소식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信憑性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면 어떤 경우에는 信憑性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12日 空輸部隊가 光州圈에 왔다 라는 소식을 어떤 學生이 전해 주어서 적었던 것 같은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戒嚴軍關係는 저희들이 14·15日間 示威를 하고 항시 끝나면 농성을 했습니다. 농성을 하고 있는데 밤 12時頃에 갑자기 戒嚴軍이 들어왔다고 떠들었어요. 자고 있는 學生들을 깨어서 나가 보니까 正門으로 들어와서 後門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全南大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때 靛차 한 臺와 「트럭」 두세 臺가 따라 왔다고 그랬는데 그 軍人들이 내려가지고 運動場 주위에 흩어져서 정찰하고 갔답니다. 5·18 이후에 그 자리에 「텐트」도 쳐 있다고 그러더구만요.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당시 戒嚴軍의 첫 發砲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韓尙錫 제가 5·18 이후에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지난 번에 聽聞會를 TV를 보면서 의문이 나서 제가 病院에 우연히 들렀다가 手術臺帳을 본 것이 있습니다. 全南大學病院에 手術臺帳을 보니까 5月19日 오후에 銃傷患者를 수술했더구만요. 나이는 19살이고 김영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銃傷患者가 19日 全南大學病院에 수술할 정도가 되면 아마 최소한도 그 언저리부터 發砲는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金仁坤委員 예. 證人은 本委員을 아시겠습니까?

○證人 韓尙錫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金仁坤委員 제가 金仁坤인데 光州出身인데 모르시겠어요?

○證人 韓尙錫 光州出身인줄은 알고 있어요. TV를 많이 봤기 때문에...

○金仁坤委員 예. 아마 5月的 그 民族의 悲

劇을 證人이나 나나 같이 당하고 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서 봤습니다. 그런 것을 歷史와 民族앞에 느끼는바... 약 8분이 남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십시오.

좀 시끄러워요!

○證人 韓尙錫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大學校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에 5月3日 新聞을 보고 全南大學校에서 5月8日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月14日까지 非常戒嚴을 해제하지 않으면 街頭示威라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13日 延世大生들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數千名이 光化門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14日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는데 대치하고 있었던 警察의 幹部가 서울에서 13日 「데모」隊가 나왔기 때문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한발 물러서고 우리 學生들도 물러서면 오늘은 계획이 없으니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양보를 안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고생한다면 우유도 줬어요. 說得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 警察이 최루탄「가스」를 쏘면서 街頭進出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4日은 저희들이 칠팔천名 나갔었는데 아마 6·29事件하면 盧泰愚 世宣言이 아니고 78年度 全南大學校 教育集會 事件때 한 100餘名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칠팔천名이 나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행여 그 學生들이 나가가지고 이 무질서하면 어쩔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 道廳 앞에서 太極旗를 걸고 愛國歌를 부르고 그 다음에 默念을 드리고 그리고 성회를 시작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警察에서 거기서 해산하기를 바랬습니다마는 거기서 해산할 경우에 어떻게 무질서한 人員들이 다른 混亂을 야기할 것 같아서 隊列을 지어서 아까 寫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學校에 들어가서 만세삼창하고 해산했습니다.

○金仁坤委員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全斗煥 一黨이 극소수 軍人을 총동해서 政權을 잡기 위해서 평화스러운 우리 光州 良民을 학살했습니다.

그러고도 난 다음에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가지의 不正을 저지르고 지금 白潭寺에서 僞證 懺悔 그것을 벌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一族이 지금 監獄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證人의 心情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韓尙錫 自業自得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연극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가 사과를 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真相을 밝혀 줘야지요. 아울러서 지금 이 光州特委가 正常的으로 하 시려고 하면 光州市民들이 바라는 최소한도 「비디오테이프」라도 들어주면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民正黨 權委員님께서 質問하시기 전에 묵념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마는 제 자신은 罪人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月光州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全斗煥씨가 그렇게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명하시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真相을 밝혀주고 本人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光州에서 그것을 듣고 맞다 그르다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金仁坤委員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證人도 알고 나도 알고 歷史도 알고 全民族이 아는 얘기를 한마디로 잘 표현했습니다.

5分 남았습었다마는 이상 訊問을 마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安榮基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時間은 20分입니다.

○安榮基委員 安榮基委員입니다.

訊問을 시작하기 전에 委員長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國會 聽聞會場이 엄숙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證人이 軍事法廷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國會冒瀆이 되는 發言이기 때문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모르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이상 탓하지 않고 이 부분은 速記錄에서 삭제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證人 어떻게 됩니까?

○證人 韓尙錫 제가 軍事法廷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위기가 軍事法廷같다는 것이 아니고 權委員님이 쪽 읽어나가시는 대목이 軍事法廷에서 쪽 읽어나간 대목하고 너무 비슷하다……

○李育珪委員 證人보고 얘기 안 했어!

○證人 韓尙錫 證人の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방금……

○安榮基委員 이 軍事法廷이라는 술어는 일단 여기서 除하는 것을 本委員은 제의를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軍事法廷이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지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安榮基委員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그 다음 두번째 문제는 證人께 말씀드리겠습니다.

證人이 먼 데서 이렇게 밤 늦게까지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과정에서 情報課 刑事가 證人을 査察을 했다고 그리고 전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民主化 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刑事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證人 韓尙錫 西部警察署 朴刑事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安榮基委員 이름은 자세히 모르시지요?

○證人 韓尙錫 예.

○安榮基委員 아까 證人이 이 내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딜 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까? 무슨……

○證人 韓尙錫 아마 지난 17日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24日로 그때 결정이 났었는데 서울을 가느냐 안 가느냐?

○安榮基委員 그런 내용만 물어보았습니까?

○證人 韓尙錫 올라가지 않았다고 報告를 했는데 안 올라가고 전화를 받으니까 대단히 고맙다. 그러면 지금도 査察을 해야 합니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지금도……

○安榮基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證人이 權海玉委員말씀에 무슨 어떤 民正黨이 꼬투리를 잡는다. 이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체는 이러한 자유

「노트」같은 本人이 얘기한 계획한 豫見한 또 반성한 이러한 「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訊問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슨 相對的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訊問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나간 세월 證人은 학창시절에 꿈도 낭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젊은이로서 여러가지 갈등과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에 證人 아마 행동이나 사상이나 또 言論에서 여러가지 아마 제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도 그러한 세월 學校에 있을 이러한 몸 담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學生들의 그러한 학창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光州의 진실을 밝히고 이 진실이 정확히 밝혀져서 또 政府가 결정한 이러한 光州의 명예 光州의 희생자의 權利가 회복이 되고 또 나아가서 本人들이 요구하는 또 적절히 모두 수궁할 수 있는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화합의 분위기로 과거의 퇴영속에서 國力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라도 미래를 보는 이러한 祖國의 앞날을 위해서 證人과 本委員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몇가지 문는데 대해서 이러한 해결을 하고 수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간결한 答辯을 바랍니다.

大學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證人 韓尙錫 哲學을 專攻했습니다.

○安榮基委員 哲學이십니까?

지금 事業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證人 韓尙錫 예.

○安榮基委員 이것이 88年5月24日 한겨레新聞입니다. 여기에 나온 記事를 하나 보고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光州民主化運動의 原因이 여러가지로 分析이 됩니다. 우선 光州 일각이나 또 野黨 衛에서 軍部 勢力이 執權하기 위한 「시나리오」 각본으로 市民을 학살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初期에 空輸特戰團이 과잉 鎮壓을 해서 또 市民이 과잉방어를 하는 이러한 상대성에서 온 우연으로 폭발된 것이 加重해서 일어났다는 說도 있습니다. 그러나 5月24日 한겨레新聞에 감상집씨



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證人 韓尙錫 예.

○安榮基委員 5·18 항쟁동지회 代辯人이지요?

○證人 韓尙錫 확실하게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安榮基委員 그런 職責으로 여기에서 對談에 입했습니까. 여기에는 論說委員 김종철씨 기억납니까? 또 박현채씨 經濟評論家 새분이 對談하는데 보게 되면 5·18光州民主抗爭同志會 代辯人 김상집씨는 이 김상집씨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Y과입니다. YWCA 아시지요? 녹두서점 김상원씨의 實弟지요?

○證人 韓尙錫 예.

○安榮基委員 이 녹두서점을 제가 알기에는 光州民主化抗爭에서 끝까지 道廳에서 抗爭을 한 이런 분들이 자주 모이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證人 韓尙錫 제가 5·18 이후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安榮基委員 알겠습니다.

이 김상집씨는 光州抗爭이 軍部の 의도적인 도발때문에 일어났다는 견해에는 反對이다. 당시 光州를 중심으로 全南 일대에는 勞働者 農民 學生등 여러 부분 運動이 大衆的 기반을 굳히고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이 5月17日 金大中總裁를 비롯한 政治人을 연행후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전투세력화 했던 것이다. 5·18이 軍部の 도발에 의한 것이었거나 우발적인 事件이었다고 보는 견해에는 반대한다. 확실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本委員이 생각하기에 表面的으로 발설하기 어려웠던 이런 함축성 있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證人은 光州民主化運動을 軍部の 執權을 위한 「시나리오」라는 說 두번째 軍部の 과잉진압과 市民의 과잉방어의 상대성에서 온 우발적인 원인 세번째 光州地方의 여러부분 運動의 大衆的 基盤 위에서 金大中總裁를 비롯한 政治人 연행에 전투태세화 되었다는 說 이상의 세가지 說 중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韓尙錫 제가 볼 때는 첫번째 政治軍人들이 非常戒嚴해제는 커녕 擴大措置를 내렸고 擴大措置를 내려서 과잉진압하러 내려온

軍人들이 진압은 커녕 학살을 했고 거기에 의분을 느낀 市民들이 民衆抗爭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安榮基委員 그러면 證人은 軍部の 執權을 위한 武力「시나리오」로 光州市民을 학살했다는 野黨의 說에는 反對합니까?

○證人 韓尙錫 그 軍部執權의 「씨나리오」가 있었을 것 같다는 것은 저희들이 5月15日 蠐 蠐示威를 밤에 끝내고 또 17日 아침 6時에 道廳앞에 그 「데모」했던 場所를 清掃를 하고 학생들이 授業까지 했었어요. 그랬는데 17日 24時를 기해서 擴大되었는데 擴大되기 전부터 軍이 왔었고 또한 24時5分前에 空輸部隊가 들어와 가지고 全南大學校에서 했던 어떤 鎮壓過程을 보면 무자비했었습니다. 그래서...

○安榮基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의 다 아는 例로 「비디오」도 다 봤고 각종 서적이란가 그 동안에 전부 調査를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證人 本人도 學校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그때 학생입장에서 사실상 지금 어느 일각에서 얘기하는 軍部執權에 대한 武力「씨나리오」가 光州에서 학살이 일어났느냐 이러한 것에서도 저도 상당한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 5·18光州市民抗爭同志會 김상집代辯人이 여기서 정확히 밝힌 것을 보고 또 證人의 얘기를 들어보아서는 학생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가지로 억압을 받고 또 의분을 느끼고 한 데서 原因이 일부 일어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證人 韓尙錫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희들은 16日까지 3萬名이 야간에 道廳에서 모여가지고 蠐 蠐示威를 평화롭게 끝내고 지금...

○安榮基委員 證人! 그것은 이제부터 물어가겠습니다. 물을 때 서로 얘기합시다. 證人은 1980年5月8日 全南大學校 앞에서 대학생 4,000名이 모인 자리에서 戒嚴解除 二元執政府制反對 中選舉區制構想 즉각 철회 言論自由保障을 외치면서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한다는 주장 아래 第1時局宣言文을 낭독하고 示威를 주도한 일이 있지요?

○證人 韓尙錫 예.

○安榮基委員 그러면 이상이 第1時局宣言文이

라면 第2時局宣言文은 언제 발표되었고 어떤 내용입니까?

○證人 韓尙錫 時局宣言文을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安榮基委員 그러면 제가 證人의 기억을 좀 도와드리지요. 第2時局宣言文은 80年5月13日 全南大學生 5,000名이 光州新驛에서 錦南路까지 5km를 示威하면서 우리 大學人의 民主力量을 총집결하여 反民主 反民族勢力과의 聖戰을 연속히 선포한다. 우리가 흘린 젊은 피가 統一祖國으로 가는 노정에 핏빛진달래가 피어오르기를 바란다. 온몸으로 鬭爭할 것을 결의하면서 이 거대한 民族의 대열에 우리의 大學人도 적극 동참해서 民主祭壇에 희생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第2時局宣言文이나 1宣言文을 證人이 作成한 것이 아니지요?

○證人 韓尙錫 예.

○安榮基委員 제가 알기에는 全南大學校學生會 總務部長 英文科2學年 양강섭이가 作成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全南大學校 學生會 文藝部長 國文科3學年 박영선이가 草案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證人! 어떻게 됩니까? 아십니까?

○證人 韓尙錫 아까 第2時局宣言이 며칠이라고 하셨습니까?

○安榮基委員 그것은 5月14日이 되지요.

○證人 韓尙錫 이 第1 第2時局宣言文은 저희들이 5月8日民主化聖會를 서울에서 이미 5月2日 하고 나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宣言文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많이 했었습니다.

○安榮基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光州民主化事態의 擴大過程을 살펴보게 되면 5·18休校措置후에 全南大學의 戒嚴軍駐屯 학생과 충돌 戒嚴軍 과잉진압 지역감정자극 및 婦女子殺傷이란 流言蜚語등 流布로 지역인의 감정이 자극된 일부 학생과 시민의 흥분된 행위로 派出所가 파괴되고 방화되고 警察車가 방화되고 軍用車 裝甲車 消防車가 탈취되어서 중심가에 질주되었고 光州文化放送局 韓國放送公社 光州放送局 言論機關이 방화 점거되었고 羅州和順警察署와 鑛業所의 武器庫가 습격되어서 武器 및 爆藥이 탈취되었고 全南大學病院 屋上 및 전일 '빌딩' 옥상에 기관총을 설치했고

총기조작미숙의 一般示威群衆이 기관총 소총 5,400挺 實彈 29萬1,000發 수류탄 다소 爆藥 3,000상자 裝甲車를 비롯 車輛 413臺가 武裝示威隊에 被奪되어 경비중인 軍警과 난사를 하는 등 완전 市街戰을 방불케 하는 무장교전까지 감행되었는데 警察과 戒嚴軍이 光州驛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며 드디어 全南道廳마저 점거되기에 이르러 光州 일원의 國家機能 및 交通 등의 기능이 마비되어 극도의 治安不在 상태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다시 이 사태는 木浦 咸平 務安 靈巖 康津 長興 羅州 榮山浦海岸 和順地域으로 확대되어 警察署가 습격되고 治安不在 상태로 진입을 했으며 이 問責資料로 보게되면 道警局長 木浦署長 道警 作戰課長 羅州署長 靈巖署長 和順署長 道警警務課長 道警裝備係長 和順警務課長 이러한 警察責任者가 섬으로 도피하고 警察作戰은 실패하고 2·3일씩 전부 도피하고 武器는 被奪되고 어떤 警務課長은 武器를 매몰하고 도망을 한 이러한 예로까지 진입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治安不在인 그 5日間에도 그 學生과 市民들이 잘 협조를 해서 戒嚴軍이 東區 鶴雲洞 734번지 최충덕씨 일가족 3名을 사살하고 박순일병원장의 금패물과 현금강탈사건 東明洞에서 3家口 강도사건외에는 市民의 협조도 무사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의 과정에 의하면 결국 光州事態는 證人 등이 작성한 자유'노트'에 의거 예견 계획한 대로 學生示威로 暴力이 되고 戒嚴軍의 충돌 유혈사태를 야기시키고 流言蜚語를 유포시켜 市民 勞動者 農民 高等學校學生까지 폭력가세케 하여 道廳 放送局 등의 公共機關까지 점거방화하기까지에 이른 것이라고 미루어 단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眞偽與否를 알려주십시오.

이 자유'노트'는 證人이 작성하신 것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반부는 손성태씨 후반부는 證人이 작성한 것입니까?

○證人 韓尙錫 예. 작성은 그렇게 되었는데 둘이 앉아서 했기 때문에 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安榮基委員 이 내용은 다 아시지요? 두번째 물음은 證人이 이 자유「노트」는 1980年5月初부터 5月15日까지 期間에 작성한 것입니까?

○證人 韓尙錫 예.

○安榮基委員 證人의 체포에 우려해서 秘密企劃室要員인 문승현씨... 맞습니까?

○證人 韓尙錫 秘密企劃室要員이 아니고 후배지요.

○安榮基委員 아 후배입니까? 證人의 후배인 문승현씨에게 지금까지의 全南大學生運動 및 示威狀況을 분석하고 豫見을 해 적어놓은 日紙가 있으니 잠시 보관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말했다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證人 韓尙錫 그것은 아닙니다.

○安榮基委員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證人 韓尙錫 이 자유「노트」라는 것은 5月14日까지 非常戒嚴解除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했고 解除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두시위를 할 수 밖에 없다. 서울大學校에서 이미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두시위를 維新治下에서 전혀 안해 봤었는데 그것을 질서있고 평화롭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대목에서 5月8日부터 그때그때 들어온 소식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14·15·16日 이 示威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렇지 이게 뭐 다른 것은 아닙니다.

○安榮基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다른 委員의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이따가 저기서 뵙아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安榮基委員 그러면 지금 光州日報에 11月24日 「인터뷰」하신 것이라고 그랬지요?

○證人 韓尙錫 예. 聽聞會할 줄 알고 했습니다.

○安榮基委員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정보를 주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證人의 진실한 마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고 감동받은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5月11日 작성된 자유「노트」 13「페이지」에 축창 「밭데리」 방총국 公共建物接受 豫備軍武器庫接受라는 그 몇줄의 關鍵은 한 학생이 學生會에 와서 한 말을 손성태씨가 「메모」한 뒤 大田 「가톨릭」農民會

本部로 확인해보니 대전「가톨릭」農民會本部에서 한 두사람이 그런 의견을 내놓았으니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봤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學生會示威計劃과는 선연 무관하다고 한바 있지요?

○證人 韓尙錫 예.

○安榮基委員 그리고 여기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證人도 젊고 그러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또 이제는 社會의 中견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셨으니... 證人은 豫備軍武器庫接受니 公共建物接受 운운한 내용이 한 두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한 사람도 아마 그 19日 집회에 참석한 것이고 또 많은 軍중이 집회시에 한 두사람의 과격한 행동이 있으면 그것이 삼각한 과문을 일으키는 것이 軍중심리인데 별로 문제가 안된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시는데 그렇게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本委員은 「소비에트」를 불과 3% 미만의 共產分子가 「프로레타리아」革命을 일으킨 이러한 예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證人 韓尙錫 저도 이것가지고 대단히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트」는 저희들이 1審裁判이 끝나고나서 2審裁判때 그러니까 80年10月25日頃에 檢察側에 이것이 압수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13「페이지」의 이 한줄 가지고 質問을 계속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逆情報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學生運動을 한다든가 하면은 계속 뭔가 흘러줍니다. 이 전체를 놓고 볼때 13「페이지」이 한줄 빼놓는 과연 어떤 폭력을 하려고 했든가 오히려 폭력을 저희들이 지양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3「페이지」 보시면 끝에 와서 일반시민 인식의 호응도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해 놓고 해보니까 이 6·29 다시 말해서 교육 집회사건때 저희들이 가두진출해서 보니까 지금 완전히 이대로 쌓여 있어 가지고 피해의식 강박관념이 있다 불안이 고조되었는데 이

것은 안된다.

우리들이 우리 행사를 하면은 이 학교에서만의 행사만이 아니고 학외에서 하면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安榮基委員 아니 證人의 그 심정은 여기 신문을 보고 꽤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하셔도 알겠는데 사실 13「페이지」 문제만은 상당한 그때 어려운 문제로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13「페이지」에 있는 19日문제 같은 것은……

그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全南大學校 學生會 事務室에 金大中씨의 사진을 본 일이 있습니까?

○證人 韓尙錫 없습니다.

○安榮基委員 없습니까? 그 證人은 먼저 그 자리에서 鄭東年씨가 진술한 것을 訊問에 證言한 것으로……

○證人 韓尙錫 예. TV를 봤습니다.

○安榮基委員 예. 그 學生會에 金大中總裁의 사진을 걸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보셨습니까?

○證人 韓尙錫 못봤습니다. TV는 봤습니다.

○安榮基委員 아니 그때 學生會 事務室을 안드나 들으셨습니까?

○證人 韓尙錫 예.

○安榮基委員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까마는 어느 경우도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그 鄭東年씨 말로 들어서서는…… 그래서 저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證人처럼 이렇게 新聞을 보고 순수한 그 學生運動을 하는 분들이 그러한 特定人 사진을 學生會에다 갖다 걸어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證人 韓尙錫 저도 지금 결국 鄭東年씨가 가져온 500萬원에서 80萬원을 받은 것으로 公訴狀에 나와 있는데 이 자유「노트」를 보시면 金大中씨라는 기록이 세군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公訴狀에 보면 金大中을 大統領으로 하기 위해서 평소 지역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유「노트」를 보시면 그 公訴狀이 전혀 허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安榮基委員 다음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證人이 작성한 자유「노트」의 13「페이지」나 또 搜查上 陳述자백내용 또 지금까지 證人하고 本委員의 訊問에 證言한 것을 미루어 본다면 證人의 80年 5月 14日 16日에 가두시위와 각종 미래를 예견하고 계획한 각본이 사실화 되었다는 것은 證人의 지금 주장은 우연이기는 너무 참 기적입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全南大 學生會長의 秘密企劃「팀」으로서 第1 第2時局宣言文을 발표하고 戒嚴解除와 全斗煥 申鉉礪의 퇴진을 주장한 점 그 자유「노트」를 봐서는 치밀한 계획하에 서울 全南北 학생의 일체감의 형성 또 勞動者 農民 宗教人 在野人의 연계운동을 추진하여 시위를 시도한 점을 미루어 그 당시의 民衆抗爭의 주체가 學生이라는 英雄的 환상을 가졌지 않나 하는 證人이 지금은 유망한 企業人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서로 경하할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시대를 경험한 本委員이나 證人이 證人과 같은 학창시절이 후배에게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다같이 기원합니다.

光州民主化運動이 本 特委에서 원인이 밝혀지고 政府의 조속한 수습책이 추진되기를 다같이 기다리면서 더이상 國力의 낭비를 止揚하고 光州事態의 상처가 말끔히 아물어서 조국의 앞날의 발전에 國力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은 本委員만이 아닌 全國民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證人! 먼 데서 올라오셔서 밤늦게까지 證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證人 韓尙錫 英雄的인 사고라는 것은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辛基夏委員 10分 訊問해 주십시오.

○辛基夏委員 먼저 全南大學校 學生會에는 企劃部가 있지요?

○證人 韓尙錫 예.

○辛基夏委員 그런데 民正黨委員님들의 표현을 빌리면 秘密企劃「팀」에 證人이 소속해서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證人이 證言하기는 秘密이라는 말은 타당치 않고 企劃委員會라고 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같은

데 企劃部와 證人이 속하는 이 자유「노트」를 작성한 企劃委員會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證人 韓尙錫 저희들은 그야말로 學園自律化推進委員會라고 하면 상당히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때 4月19일부터 總學生會 室長으로 되어서 5月8일까지면 불과 보름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사정을 모르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조언하는 의미에서 뭐 것인지 그것이 저희들 수사를 받을 때 들어가니까 뭐 박관영 총학생회장 밑에 가서 警護室도 있고 비서실도 있고 秘密企劃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秘密企劃室이라는 것은 저희들 수사 받으면서 그 名稱을 알았습니다.

○辛基夏委員 말하자면 全南大學校 學生會에서 5月16일까지 학생운동을 하는데 거기 학생회를 도와주기 위한 임시 몇 명의 모임이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證人 韓尙錫 그렇지요.

○辛基夏委員 그 다음에 1980年5月17日 밤에 공수특전 7旅團 33大隊와 35大隊가 光州에 왔다 그래서 33大隊는 全南大學校를 35大隊는 朝鮮大學校를 점거해서 그날 밤에 全南大學校와 朝鮮大學校 내에 있는 도서관 기타 교실 학생회사무실 「클럽」사무실 등에서 많이 잡아다가 운동장에 옷을 벗겨서 꿰려 놓고 여러가지 행패를 부렸다 했는데 證人은 5月18日 아침에 光州를 떴기 때문에 5月17日 밤에 全南大學校와 朝鮮大學校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동료 또는 후배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을텐데 이에 대해서 아는바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證人 韓尙錫 이번에 全南大學校에 들어가서 수위들을 만나고 또 今年5月18日 光州日報에 기사가 나옵니다. 5·18 그날 해 가지고…… 이 기사를 보시면 정확히 5분 전이었다. 그러니까 5月17日 24時가 되기 이전에 이미 진주하고 진주해서 소위 공부파라고 하는 學生들을 連行해서 本部에 무릎을 꿇리고 일어서거나 움직이면 두들겨 패고 또 6時頃에 學生處長님이 나오셨는데 그런 지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學生은 아무 죄도 없는데 무슨 짓들이냐 그래서 3層會議室로 옮겨놓고 나중에 정문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교수님이 봉변당한다는 이런 여러가지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軍人들이 떠나고

나서 21日인가요 이 記事에 나오는데 自然大 1層의 강의실이 이제 대가소였던 모양입니다. 떠나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핏자욱이 「시멘트」바닥에 남자하고 머리카락이 한웅큼씩 있고 신발과 혁대가 뒹굴고 있었다 그런 記事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그 상황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記事만 인용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辛基夏委員 證人이 방금 證言하신 것은 모두 들어서 아는 것이지만 5月17日 밤과 5月18日 새벽에 全南大學校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다 그렇게 들은 것이지요.

○證人 韓尙錫 신문에 나와있는 記事입니다.

○辛基夏委員 그리고 5月18日 아침에 등교하는 學生들은 가방을 들고 登校하였는데 그날은 일요일이지요?

○證人 韓尙錫 예.

○辛基夏委員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려고 나온 學生들한테 공수부대들이 母校인 全南大學校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모르고 공부하러 나온 學生들이었다고 들었지요?

○證人 韓尙錫 大多數 學生이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辛基夏委員 그러면 소수학생은 공수부대가 全南大學校를 점거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까?

○證人 韓尙錫 그때 軍事法廷에 최병진君인가 檢察側 證人으로서 나왔었는데 그 學生은 호기심에서 休校令이 내렸으면 어떨까 하고 와서 봤다가 戒嚴軍에게 얻어맞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證言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나온 學生 전체가 공부하러 왔다는 생각은 안되고 대다수는 아마 공부하러 왔을 것이고 소수는 호기심에서 學校가 갑자기 어떻게 戒嚴軍이 와있다 하니까 그래서 염려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辛基夏委員 1980年5月21日부터 27日까지의 이른바 行政不在의 7日間の 光州는 犯罪없는 光州라는 말이 파다할 정도로 아주 질서있는 市民意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同僚 民正黨所屬 委員의 말을 빌리더라도 그러한 건전한 市民意識을 보여 주었는데 이처럼 건전한 市民들이 얼마나 戒嚴軍의

잔악한 공격이 있었으면 총까지 들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軍에게 대항할 수 있었겠는가 그 심정에 대해서 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韓尙錫 그리고 아까 安委員님께서 내용을 쪽 들어보니까 그게 아마 戒嚴司에서 發表했던 내용들이 쪽 나와 있는 것 같고 지금 여기 光州特委에서 수렴된 내용들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7措置 이후의 상황은 다음에 듣기로 하시고요 거기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安委員님 質問할 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렸는데 이 自由「노트」에 보시면 13「페이지」에는 지난번에 鄭東鎬委員님께서 金大中씨 訊問할 때 이야기했던 대목이 나오는데 그 計劃이 23「페이지」와 29「페이지」에 가면 6時에 道廳을 목표로 평화적 시위를 하게 되어 있고 午後 2時에 북동성당에서 集會에 學生이 300餘名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관계된 「서클」 그러니까 農業에 관계된 「서클」 등이 참석하기로 한다 이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3「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5月11日 쓴 것이고 뒤에는 15日 내지 16日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辛委員님께서 質問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 5·17擴大措置 이후의 상황은 저희들 學生들이 예상하거나 아까 安委員 말씀대로 기가 막히게 예상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戒嚴軍들이 이 화보에 나와있는 것처럼 잔인무도하게 실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듣기로 銀行 유리창은 안깨지고 金銀방이 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辛基夏委員 證人은 주위의 친지나 동료나 수많은 光州市民들로부터 光州에 돌아와 가지고 다 들었지만 또한 생생한 「비디오테이프」도 많이 보았고 사진도 많이 보아서 얼마나 많은 市民이 얼마나 잔악한 방법으로 당했는가 하는 것을 보지 않았더라도 능히 짐작해서 알 수 있었지요?

○證人 韓尙錫 예. 제가 영창에 있을 때 그때 ...

○辛基夏委員 영창에서 나와서 光州市內에 있으면서 그런 것 못 느꼈어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證人 韓尙錫 예, 그때부터 느꼈고 나와서

당연히 보았지요.

○辛基夏委員 그리고 自由「노트」 13「페이지」에 적혀진 죽창 「반대리」 放送局 뒤 公共建物 접수 등등 이렇게 적혀진 것은 아까 證人의 말을 요약하면 大田에 있는 「카톨릭」 農民會로부터 들어온 첩보라고 그래서 그 첩보 사실을 여기에 적어 냈고 이 적어놓고 나서 과연 「카톨릭」 農民會에서 들어온 이 첩보가 타당한가의 여부는 우선 고사하고 실현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었지요?

○證人 韓尙錫 예.

○辛基夏委員 그래서 점검을 했더니 실현 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證人 韓尙錫 실현 가능성 여부는 고사하고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辛基夏委員 우선 타당성 자체도 없다고 생각하고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렸음은 물론이러니와 타당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이고 또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현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 그 말이지요? 自由「노트」 2集 29「페이지」에 보면 5月 16日 戒嚴軍이 全南大學校內 진입해 올 것을 예정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證人 韓尙錫 예.

○辛基夏委員 어떻게 해서 戒嚴軍이 16日 全南大學校에 진입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證人 韓尙錫 15日입니다. 15日 아까 金仁坤委員님께서 質問하실 때 答辯했습니다마는 戒嚴軍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썼던 것입니다.

○辛基夏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은 많은 與의 人士들이 光州民主化運動을 真相糾明 보다는 真相糾明은 이미 과거의 것이니까 과거의 상처를 아물려서 앞을 지향해서 미래를 지향하자 그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 물론 미래를 지향을 하고 상처를 아물려면 과거의 사실을 밝혀서 나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좋은 것은 귀감이 되어서 본받는 일이 되어야 하겠다 바로 우리가 學校에서 歷史를 배우고 歷史冊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바로 光州 5·18民主化運動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사실 그대로 규명을 해서 우리의 後孫에게 귀감이 되는 歷史的 教훈을 주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바로 이 真相糾明特別委員會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데 證人も 本委員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證人 韓尙錫 예. 동감입니다.

○辛基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民主正義黨의 朴燾太委員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朴燾太委員 마지막이 되면 우리 委員長님께서 항상 정리를 해 주시지요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 안하셨지만 제가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質問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삼아서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證人은 아까 證言하기를 5·18民主化運動이 시작되기 직전에 서울로 도피했기 때문에 民主化運動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光州에 안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韓尙錫 예.

○辛基夏委員 그러면 光州民主化運動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즉각 알았습니까?

○證人 韓尙錫 지금과 같이 평가되는 光州民主化運動이 일어난 것을 몰랐습니다. 戒嚴司 發表로 알고 있었었습니다.

○朴燾太委員 그러나 光州市民들이 戒嚴當局에 저항해서 많은 事態가 진전된 것은 알고 있었지요?

○證人 韓尙錫 27日 무렵 지난 말씀이십니까?

○朴燾太委員 아니요. 光州民主化運動이 18日 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市民들이 합세해 가지고 그 당시 戒嚴軍하고 대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報道가 많이 났지 않았습니까?

○證人 韓尙錫 報道에는 지금 朴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報道가 아니고 그야말로 光州에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고 流血事態가 나고 뭐 不純分子가 준동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朴燾太委員 그때 報道가 많이 났습니다. 論爭하고 싶지는 않는데 報道가 되어 가지고

그때 뜻있는 사람들은 光州에 많이 갔어요. 가서 합세해 가지고 民主化運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 某委員도 事態가 난 뒤에 가셨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證人 韓尙錫 報道가 통제되어 가지고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8日 아침에 合搜團이 권총을 들이대고 花亭洞 저회 집을 덮쳤다가 靈光집을 덮쳤다가 또 서방의 친구집을 덮쳤다가 못 잡았습니다.

○朴燾太委員 그 동안에 그러면 어디 계셨습니까? 證人은...

○證人 韓尙錫 제가 17日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시내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朴燾太委員 시내라는 곳은 어디 시내입니까?

○證人 韓尙錫 光州 大仁洞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妹兄이 갑자기 전화해 가지고 큰일났다 軍靴발로 권총을 들이대고 안방까지 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너 빨리 도망가라 그러지 않으면 큰일나겠다 그래서 바로 그때 光州를 피해 나갔었습니다.

○朴燾太委員 피해나가서 어디 계셨지요?

○證人 韓尙錫 서울에 있었었습니다.

○朴燾太委員 서울에 꼭 계셨습니까?

○證人 韓尙錫 예.

○朴燾太委員 그래서 證人은 光州民主化運動에 헌신적으로 鬭爭한 일도 없고 해서 사실은 證人으로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證人 韓尙錫 예. 오히려 罪人입니다.

○朴燾太委員 그래서 證人도 아까 그것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證人이 나오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때문에 “내가 이 證人席에 지금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韓尙錫 저는 원래 光州民主化運動에 참여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그때 돌아가신 英靈들이나 遺家族에서 비하면 제가 罪人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위 光州事態라는 件으로 裁判을 받아 가지고 光州事態의 內亂首魁는 鄭東年씨이고 거기에 主要任務從事를 제가 책정 받아 가지고 懲役 12年을 받고 그 뒤에 金大中씨 釋放할 때 2年半을 살다가 公州矯導所에서 出監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 5·18이후에는 光州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光州件에 관여된 그러니까 裁判으로 관여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朴燦太委員 裁判에 관여되어서 刑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證人 韓尙錫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民主黨이 신청해서 통상적으로 民主黨은 被害者를 신청한다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됐었습니다.

○朴燦太委員 이제는 아셨을 것인데 그 이유는 證人이 쓴 自由「노트」라고 아까 여러 委員들이 보여 주었기 때문에 저는 안보여 드립니다마는 自由「노트」때문에 지금 證人으로 나왔습니다.

○證人 韓尙錫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朴燦太委員 그리고 나오신 이유가 또 自由「노트」가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명작이기 때문에 나오신 것이 아니고 自由「노트」에 計劃되어 있는 것이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실제 光州事態가 발발한 뒤에 그대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證人이 나와서 꼭 證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나오신 것입니다.

○證人 韓尙錫 그런데 그 自由「노트」는 80年 10月25日에서야 合搜團에 押收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審裁判때 증거로 채택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참 재미있네요.

○朴燦太委員 그런데 작성은 5·18 光州民主化運動이 일어나기 前에 작성한 것이지요?

○證人 韓尙錫 그렇지요.

○朴燦太委員 거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중에 學內示威計劃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아까 여러 委員들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休校令이 내리고 戒嚴軍이 進駐하면 그때 우리 學生들은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休校令이 내리면 그날 아침에 全南大學校앞에 모여 가지고 투쟁을 하다가 여의치 못하면 11時경에는 新驛앞으로 가고 다시 12時에는 道廳앞으로 가서 거기서 투쟁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실제 光州事態가 일어난 시발이 全南大學校앞에 學生들이 모여 가지고 5月18日

아침에 戒嚴軍하고 投石戰을 벌이다가 결국은 밀려 가지고 그 뒤에는 道廳앞으로 나아가서 大대의인 市民合勢의 그런 示威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自由「노트」에 되어 있는 그 계획하고 실제 일어난 상황하고 일치가 된다. 그러니 누가 이 自由「노트」에 기재된 그 계획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證人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證人은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韓尙錫 저희들이 방금 朴委員이 말씀하신 대로 全南大學生 100名이 18日 午前 全南大學校 正門앞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틀전에 5月16日 全南道廳 앞에서 3萬名이나 되는 숫자가 모였었습니다.

그것도 야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朴委員님 말씀대로 하면 學生示威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으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데 저희는 이틀전에 야간에 3萬名이 모여가지고 대단히 평온리에 끝났어요. 끝나고 17日은 저희들이 學校에 가서 授業을 하고 거기 가서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非常戒嚴이 解除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 解除되지 않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戒嚴軍이 진압하면 또는 뭐 休校令이 내리면 이 내용은 16日 示威 이전까지에 있어서 休校令이 내릴지 모른다 계속적으로 서울에서도 學生示威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會議를 했었고 空中旋回도 되고 그래서 나가자 나가자 말자 會議하고 있었고 저희들도 休校令이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維新體制까지 休校令이 내려버리면 그 상태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18日 3萬名의 300분의 1밖에 안되는 그 숫자로 光州民主化運動이 일어났다고 하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미처 그러지도 못했고...

○朴燦太委員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光州運動 自體가 전부다가 그런 式으로 일어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 발달된 것이 公式記錄에 의해 5月18日 아침 9時頃인가 그때 全南大學校 앞에서 戒嚴軍이 있었어요. 그것을 公式的으로



始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證人이 쓴 自由「노트」에 나와 있는 計劃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이예요.

그 다음 두번째는 證人이 아까도 여러번 나왔습니다마는 측창을 가지고 放送局을 습격하고 公共建物 또 豫備軍 武器庫를 습격한다는 그런 計劃이 있습니다.

그 計劃이 또 사실대로 실제 狀況에 있어서 5月19日에서 21日 사이에 실제 光州에서 일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그 自由「노트」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 아닌가...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狀況이 일치되니까 누가 거기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해서 證人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證人 韓尙錫 아닙니다.

○朴燾太委員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몇가지 상황이 그 自由「노트」에 기재된 計劃대로 일어났을까요? 잘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證人 韓尙錫 아니요. 19日 計劃이 지금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들어온 소식을 일시 적어놓았던 것이고 뒤에 23「페이지」에 보시면 19日 計劃은 저희들은 平和的 示威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유독히 13「페이지」에 한줄이 들어왔는데 아까 어떤 質問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생각하니 逆情報 아닌가? 도대체 저도 귀신이 꼭할 노릇이예요. 19日 그런 狀況이 되게 하도록 누가 흘려 보내 가지고 故意的으로 적었다가 접어놓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지금 全般的으로 平和示威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들어오고 19日이라고 되었는데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趙洪奎委員 학생들 計劃이 아니고 記錄을 적은 것 아니예요?

○證人 韓尙錫 그러니까 武器庫 접수니 이런 것들은 저는 18日 이후니까 모르지요. 지금 計劃도 아니예요. 計劃도 아니고 그쪽에서 판단한 소식이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朴燾太委員 逆情報라고 했다 計劃이라고 했다 지금 어떻게 된일인지 귀신이 꼭할 노릇이라고 하고 저도 잘광질광인데 對答도 그

렇고 상당히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안묻겠습니다.

○證人 韓尙錫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朴燾太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證人이 자유「노트」를 光州를 떠나면서 누구 친구에게 주었지요? 주고 갔지요? 혹시 그 친구가 그 「노트」를 보고 그 計劃에 따라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證人 韓尙錫 전혀 아닙니다.

○朴燾太委員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 自由「노트」를 지금 새삼스럽게 저희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방금 얘기한 그와 같이 일련의 計劃이 光州民主化運動 全體가 計劃的으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그 일부 重要狀況을 그때 적은 대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證人 표현대로 참 귀신이 꼭할 노릇으로 狀況이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證人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自由「노트」에 대해서는 더 묻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밤도 깊었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證人에 대한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證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3時16分 散會)

○出席委員

- |     |     |     |
|-----|-----|-----|
| 文東煥 | 權海玉 | 金吉弘 |
| 朴燾太 | 辛卿植 | 沈明輔 |
| 安榮基 | 李光魯 | 李肯珪 |
| 李道先 | 李敏燮 | 鄭東鎬 |
| 鄭昌和 | 金泳鎭 | 辛基夏 |
| 李海瓚 | 趙贊衡 | 趙洪奎 |
| 崔鳳九 | 金光一 | 朴泰權 |
| 吳景義 | 李仁濟 | 張石和 |
| 金文元 | 金仁坤 | 玉滿鎬 |
| 朴燦鍾 |     |     |

○委員아닌出席議員

- |     |     |     |
|-----|-----|-----|
| 金明燮 | 金潤煥 | 金漢圭 |
|-----|-----|-----|

張	慶	宇	趙	庚	穆	崔	雲	芝
成	鍾	漢	金	德	圭	金	得	洙
金	榮	度	朴	錫	武	朴	英	淑
梁	性	佑	柳	峻	相	李	敦	成
李	炯	培	金	東	周	金	奉	祚
曹	萬	厚	崔	二	鎬	金	鎔	采
吳	龍	雲	洪	熙	杓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陳	在	勳	
立	法	審	議	官	金	永	善

○出席證人

申	鉉	礪	(전	총	리)
李	信	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관련자)
韓	尙	錫	(전남대	학원	자율화추진위원장)